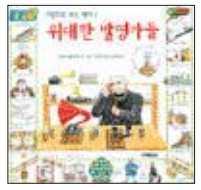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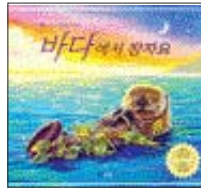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위대한 발명가들=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발명의 역사를 어린이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엮었다. 기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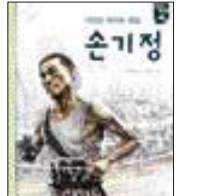
3세기 물을 끌어 올리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에서부터 1903년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까지 위대한 발명가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소개돼 있다. (미래 M&B·1만2천원)

▲바다에서 잠자오=달빛에 빛나는 밤바다의 고요한 느낌과 바다 동물의 유연한 동작을 잘 담아낸 그림책이다.



까맣고 하얀 돌고래, 추위를 막기 위해 털로 덮인 앞발로 얼굴을 가리고 자는 해달의 모습 등 다양한 바다 포유류의 모습을 엮을 수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손기정=일제강점기 마라톤 하나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운 손기정에 관한 이야기. 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삶을 통해 인내의 과정과 깊이, 그리고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랜덤하우스·8천원)



▲모짜르트의 마술피리=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모짜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담은 그림책으로, 어린이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이끈다. '마술피리'의 이야기 전개상 가장 핵심적인 15개의 장면을 뽑아 그림과 글을 곁들였다. (미래 M&B·1만2천원)



▲김구가 들려주는 백범일지=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의 인간적인 면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꿋꿋한 의지를 배울 수 있다. (세상모듬책·9천원)



▲김구가 들려주는 백범일지=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의 인간적인 면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꿋꿋한 의지를 배울 수 있다. (세상모듬책·9천원)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다

예술, 정치를 만나다 박홍규 지음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 아니지만 '바그너와 히틀러'는 예술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유대인 화살의 책임자 히틀러가 바로 바그너 음악의 신봉자였기 때문이다. 게르만족의 전설을 주로 오페라의 소재로 삼았던 바그너의 유대인 혐오는 유명했다. 그는 유대인 작곡가 멘델스존의 음악을 싫어했고, 멘델스존의 음악을 지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끼고 지휘하다가 연주가 끝나면 장갑을 바닥에 내던졌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전 도구로 이용되는 운명에 처한다. 영남대 법대 교수로 '법과 예술' '베토벤 평전' '빈센트 내 친구' 등 예술 관련 서적들을 출간해온 박홍규씨가 펴낸 '예술, 정치를 만나다'는 정치적 삶을 살았거나, 예술의 정치적 색채가 선정했던 바그너, 괴테, 존 레논, 찰리 채플린 등 세계적인 예술가 8명을 중

바그너·존 레논·찰리 채플린...

예술가 8인의 정치적 관점 모사



찰리 채플린은 영화 '독재자'에서 히틀러를 끊임 없이 조롱한다.

심모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짚어본 책이다. '히틀러'를 언급할 때 또 한명 빠지지 않는 예술가가 바로 찰리 채플린이다. '모던 타임즈' '키즈' 등 민중과 밀착된 생활을 소재로 끊임없이 웃음을 만들어냈던 채플린은 유명한 영화 '독재자'에서 이발사와 히틀러 분장을 한 힌켈이라는 두 주인공 역을 맡아 히틀러를 끊임 없이 조롱한다.

특히 당시 여러 상황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찍었던 영화 마지막의 '6분간의 연설' 장면은 '병사들이여!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으시라'는 말로 끝을 맺으며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는 바로크 시대를 풍미한 화가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루벤스와 독일 최고의 문호로 독일 재상을 역임한 괴테를 사색과 예술이 함께 이루어진, 예술가의 정치가로서의 삶을 잘 조화시킨 사례로 꼽았다.

책은 그밖에 민족주의자로 애국적인 오페라를 많이 썼지만 이후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이용당한 베르디, 노벨문학상도 거부하고 평생을 정치와 담을 쌓은 아나키스트로 살았던 사르트르, '게르니카' 등을 통해 전쟁의 잔인함을 고발한 공산주의자 피카소, 인간 자신의 혁명과 반전을 주장했던 평화주의자 존 레논 등도 만날 수 있다.

책은 모든 예술은 정치적이고, 정치와 무관한 예술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치와 예술이 만나는 모습이다. 책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이 권력과 갖는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대신 예술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한 통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예술이 정치적인 이야기와 노래를 담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선전으로 타락한다면 그것은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말과 함께. (이디미디어·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韓·日 여성 소설가가 주고 받은 편지글

산이 있는 집 ... 신경숙·츠시마 유코 지음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여성 소설가 2명이 편지를 주고 받았다. '산이 있는 집' 우물미 있는 집'은 신경숙씨와 츄시마 유코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동안 한국의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과 일본의 월간 문예지 '스바루'에 실었던 편지글을 엮은 것이다. 이들은 10여년 전 한·일작가심포지엄에서 만난 사이이다. 서신 교환은 2년 전 소설집 '외딴 방'의 일본어판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했던 신씨가 제안해 이뤄졌다. 이들은 10년 동안 알고 지냈어도 언어가 달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어린 시절의 슬픈 기억 등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털어놓아 잔잔한 감동을 주는가 하면 작가로서의 삶과 문학 이야기를 자매처럼 다정하고도 진솔하게 나눈다. (현대문학·1만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생역전 40대 통해 본 우리 사회 모순

프레지던트 게임 고원정 지음



'최후의 계엄령'의 작가 고원정씨가 새 장편소설 '프레지던트 게임'(전 2권)을 출간했다. 스포츠서울에 '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을 묶었다. 실직에 이혼까지 당한 40대 남성이 2년 반 만에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소설같은' 설정이다. 실직 5년차인 47세의 민병구는 부인에게 이혼을 당한다. 남은 것은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부인이 남긴 100만원 짜리 수표 10장과 두 달 후 비워줘야 하는 아파트 뿐이다. 우연한 기회에 TV 스타가 돼 대선 후보까지 오른 민병구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모순을 꼬집는다. 저자는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의 화려한 성공기로 읽을 것인가, 한 파멸처럼 이 저지른 회대의 사기극으로 읽을 것인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며 "이 땅의 모든 명망가, 모든 정치인에게 혹시 당신이 민병구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한다. (중앙books·각 권 9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이광수 '도산 안창호'

내 집무실에 30년 가까이 모은 책들이 수천을 헤아리지만 대부분 전공 또는 나의 보급자리인 박물관과 관련된 책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뒤따라 1980년대부터는 전국 각지의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 마련인데 국립박물관의 연구자들은 이들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각지의 발굴보고서가 소장도서의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적발굴보고서가 책 사태를 빚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못한 책 쌓아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이렇게 수많은 책들과 벗고 지내는 복 받은 인생임은 분명하게 정작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 한편을 꼽으려면 난 고등학교 입학 직전 선배의 권유로 읽었던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범우사)'라는 책을 주저하지 않고 들고 싶다.

책을 쓴 춘원 이광수는 우리 근대문학사에 있어 선구자이며 천재성을 발휘한 대문호임에는 분명하나 일제 말기 그의 체질로 인해 친일파라는 수난을 겪다 한국전쟁 중 납치된 채 불귀의 객이 됐다.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라는 책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

인격수양·삶의 지침서



여 쓴 작품이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책은 민족의 위대한 스승 도산 안창호라는 위인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전기로 인격수양과 삶의 지침서로서 더할 나위 없는 품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산 안창호라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에 대한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이 성실과 수양과 사랑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를 알려준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제1부 투쟁과 생애, 제2부 국민훈련으로 나누어져 있다. 도산의 일생을 그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청소년기 패재정의 운반에서 시작하여 미주 유학시절 교포 사회의 조직과 훈련, 귀국후 민족운동으로서의 신민회 조직, 실국에 따른 망명과 미주활동,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일경에 체포되어 수형 중 순국하기까지 민족정신의 수호자로서 그 발자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산의 사상은 흥사단운동으로 발휘되었고 흥사단운동은 그의 평생의 사업이기도 하였다. 흥사단운동은 민족독립을 위한 핵심적인 일꾼을 양성할 새로운 민족운동단체로 구상하여 만든 것이다.

즉, 흥사단은 무식 역행 층의 용감의 정신으로 걸출인격과 신성단체를 이루어 민족전도대업의 기초를 수립함에 두었다. 청소년기에 도산사상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도산 사상과의 조우는 뜻을 같이하는 많은 친구를 사귀 수 있는 기회였고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 요즘은 사회적 아젠다로 떠오른 혁신이라는 것도 기실 도산 사상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면 민족의 스승인 도산의 해안과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성낙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Advertisement for 'ROBEM' gallery featuring various products and a 30%~50% discount.

Advertisement for 'S the 1 요리학원' (S the 1 Culinary Academy) featuring carving and food styling courses.